

“소 키울수록 손해”... 줄어드는 전남 한우 농가

전남 한우 농가 수 1만 5129가구 전년 동기 5.2% 감소 사료비·인건비 상승에 생산비 급등... 한우 가격은 급락 2023년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6000원 손실 기록

전남지역 한우 농민들이 아우성이다. 산지 소값이 떨어져 사료값 감당하기도 벅찬데, 정부는 한우 농가 소득 안정 대책을 내놓는 데 대해서는 미적거리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이 더 이상 한우 사육 여부를 고민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특히 산지 소값 하락에도, 소비자 가격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장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전남지역 한우 농가 수는 1만 5129 가구로 전년 동기(1만 5961 가구)에 견줘 5.2% 감소했다.

전남 한우 농가 수는 지난 2021년 4분기(1만 6597가구)부터 줄곧 감소세다. 고품질 및 한우 생산비 상승으로 한우 사육 경쟁력이 없다며 업종을 전환하는 축산농가가 잇따르면서다.

전남 한우 농가들의 생산비는 육우 기준 두당 536만 2850원(2020년)에서 566만 6117원(2021년)으로 5.7% 오른 뒤 2022년(9.0% ↑)에

는 생산비 상승폭이 급등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료비 비중도 지난 2020년 46.3%→2021년 47.5%→2022년 50.6% 등 매년 상승했다.

한우 배합사료 비용도 올 상반기 기준 1kg 당 542원으로 지난 2021년(462원)보다 17.3% 올랐다. 국제곡물 가격 급등 전인 지난 2020년(412원)에 비해서는 31.5%나 비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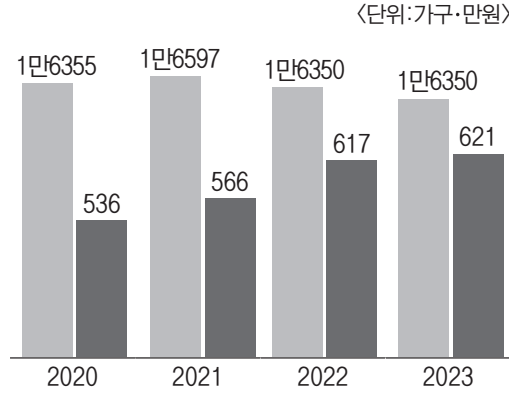
생산비는 올랐는데 한우 가격은 정 반대다.

통계청은 ‘2023 축산비 생산비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한우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6000원의 손실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다.

비육우 600kg 기준으로 3년 전인 2021년 797만 원이던 게 1년 만에 740만원으로 떨어지더니 올 5월에는 603만원까지 급락했다.

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사료비가 증가하고 산지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 한 마리 키워 팔 때마다 142만 6000원을 손해보는 구조”라며 한우 농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한우 농가수·육우 두당 생산비 (단위: 가구·만원)



전남지역 한·육우 사육농가가 경북 다음으로 많은 점에서 지역 한우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에 어떤 지원 방안이 담길 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사료구매자금(6387억원) 상환 기간을 1년 미뤄주고 농협 자조금을 활용해 최대 50%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등 한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 한우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와 생산자단체의 조율을 통한 한우 사육기간 단축 및 생산비 절감 방안, 수출 확대 등을 발전대책의 주요 사항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윤영 기자 zang@kwangju.co.kr

농협전남본부 ‘팜스테이 쌀 요리교실’ 운영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지난달 30일 강진군 엄지마을에서 광양시 진상중 재학생 40여 명을 초청, ‘팜스테이 쌀 요리교실(사진)’을 열고 쌀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학생들은 이날 전남 쌀을 활용해 직접 인절미를 만드는 체험 활동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농협은 또 요리체험 이후 ‘청소년기 건강한 식습관 정립’이라는 주제로 쌀의 효능과 중요성을 소개하는 한편, 쌀과자 시식행사도 개최했다.

팜스테이 쌀 요리교실은 새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도농상생 체험활동의 하나로 진행중이다.

농협전남본부 관계자는 “전남 지역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물고기 생명의 길’ 어도 사진·숏폼 공모전

해수부·농어촌공사 10월10일까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제7회 어도(魚道) 사진·숏폼 공모전을 연다.

어도는 강과 하천에 물의 흐름을 막는 댐, 수중 보 등 구조물에 물고기 등 수산생물의 통행이 가능한 생태통로를 가리킨다.

올해로 7회째인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국의 강과 하천에 설치된 어도 및 어도의 중요성이 부각된 장면을 사진 또는 60초 이내 짧은 영상(숏폼)으로 촬영, 제작해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사진 분야는 기존과 같이 일반 카메라, 휴대폰 등으로 찍은 사진으로 참여하면 되고 숏폼 분야는 올해 처음 신설됐다.

해수부는 응모작의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홍보 활용도 등을 평가해, 대상(1점), 최우수상(3점), 우수상(5점), 입선(15점) 등 총 24점을 선정·수상한다. 수상 작품은 어도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일반 국민 모두에게 어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ang@kwangju.co.kr

전남도, 커피·차 산업 국제 협력 체계 구축

중국 윈난성 농업과학원과 협약

전남도가 지역 커피·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농업기술원은 오는 12일 오전 중국 윈난성 농업과학원에서 기술원 차 산업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워크숍,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커피·차 상품 개발 및 최적 재배환경조사 등 산업화 방안을 모색한다.

중국 윈난성은 커피·차 주산지로, 윈난성 농업과학원은 1952년부터 200종의 자원 및 유전자 지도를 보유하고 커피 연구를 하고 있다.

농기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K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과 환경 변화에 따른 신제품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농기원은 또 내년 열리는 국제농업박람회에 중국 윈난성 참여를 추진하는 한편,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등을 공동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기원은 아울러 오는 6일 보성에서 열리는 전남산 가루녹차(6t) 호주 수출 기념식 등을 통해 지역 차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기능성 차 생산 및 가공장비 임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마늘·양파 안정적 수급관리 워크숍



전남도는 최근 시군과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자조금협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양파 광역 수급관리협의회 워크숍’을 열고 마늘·양파의 안정적 수급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도 제공>

농협·생산자단체·자조금협회 등 참여... 적정재배 면적관리 등 논의

전남도가 지난달 30일 목포 한 호텔에서 시군과 주산지 농협, 생산자단체, 자조금협회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늘·양파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한 ‘마늘·양파 광역 수급관리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현재 마늘, 양파와 같은 노지채소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높아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에 전남도는 생산자 주도의 적정 재배면적 관리를

위해 주산지 시군 농협 조합장, 생산자단체, 자조금협회로 구성된 광역 수급관리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생산정보를 예측·공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수급불안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마늘·양파 경작신고로 적정재배 면적을 관리하고, 전남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산물 군부대 등 대규모 소비자 판촉 확대와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마늘과 양파의 수급 안

정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마늘, 양파 같은 노지채소는 생산량이 가격에 민감한 영향을 끼쳐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적정 재배 면적 등 수급 조절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수급관리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고부가가치성 공모품을 만드는 로코노미(로컬+이코노미)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노리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노리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